



영광자활후견기관

문영진 사회복지사

**1** 우선 칭찬릴레이 사회복지사로 선정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계신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칭찬받기에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이승연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주민들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능습득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곳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전국에 2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프로그램 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정된 생활은 지역사회가 건강할 때 가능한 것이며, 지자체와 자활후견기관의 노력과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들에게는 사업 참여와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기능들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사업을 이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업수행을 통해 지자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일하면서 회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발생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화는 문제 해결은 물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초기와는 달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지역공동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과 회원 간에 충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들여 탐을 쌓았는데, 서로의 믿음에 의심이 생겨 무너졌을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 4 2005년에는 자활분야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자활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자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범국민적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책으로 인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전국에 242개소 자활후견기관 지정,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져 왔습니다. 민관의 노력으로 자활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자활인프라는 구축되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소득주민만을 위한 사업, 일부 계층만을 위한 분야라고 국민들이 외면할 때 자활은 성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대물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자활사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5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지켜야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쉽게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들은 원칙을 망각해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회복지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6 다음 칭찬사회복지사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 사회복지사무소추진단에 근무하는 박준희 사회복지사를 추천합니다. 10년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입니다. 

